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

이화목, 김현아*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The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Relational Aggression of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Girls

Hwa-Mok Lee, Hyun-Ah Kim*
Division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능력이 매개하는 지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인천지역 초등학교 4, 5, 6학년 여학생 177명을 대상으로 사회불안척도, 정서조절능력척도, 관계적 공격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사회불안은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 상관을, 정서조절능력 전체 및 하위요인인 문제 중심적 대처 지지추구의 긍정적 질서조절과는 부적 상관을 감정발산, 공격적 표현, 회피와 같은 부정적 질서조절과는 정적 상관을, 정서조절능력은 관계적 공격성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능력이 완전매개 하였다. 셋째,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문제 중심적 대처 지지 추구하고 같은 긍정적 정서조절은 부분 매개를, 감정발산, 공격적 표현과 회피와 같은 부정적 정서조절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와 초등상담의 실천적 함의 및 한계점과 추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verify the mediation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relational aggression in higher-grade elementary school girls. Th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177 female students in grades 4, 5, and 6 attending an elementary school in Incheon, South Korea, and the results were used as a social anxiety scale, an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scale, and a relational aggression scale. From using the data fo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ocial anxiety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emotional regulation, and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relational aggression. Emotional regulation and social anxiety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relational aggression. Second, emotional regulation was fully mediated from the effect of social anxiety on relational aggression. Thir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s from subordinate factors of emotional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relational aggression, positive emotional regulation, such as problem-centered coping support seeking was found to be partially mediated, whereas negative emotional regulation, such as emotional divergence, aggressive expression, and avoidance, was found to be fully mediated. Finall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 High Grade Elementary School Girls, Social Anxiety, Relational Aggression, Positive Emotion Regulation, Negative Emotion Regulation

본 논문은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함.

*Corresponding Author : Hyun-Ah Kim(Seoul Cyber Univ.)

email: haha6082@iscu.ac.kr

Received April 24, 2019

Accepted August 2, 2019

Revised June 5, 2019

Published August 31, 2019

1. 서론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들의 학교 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 중학교, 고등학교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동일하였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피해유형별 비율은 언어폭력(35.6%), 집단 따돌림(16.4%), 스토킹(11.1%) 순으로 나타났다[1]. 이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시기가 초등학교로 증가하고 있고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폭력형태에 관심을 기울여 함을 시사해준다. 특히, 초등학교 시기의 높은 공격성은 이후 청소년기의 문제 행동이나 성인기의 범죄행위와 연계될 수 있다[2]. 공격성은 표현방식에 따라서 외현적 공격성(over aggression)과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외현적 공격성은 공격대상을 치거나 미는 행동과 같은 신체적 공격이나 타인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위협과 같은 언어적인 공격이라면, 관계적 공격성은 타인과의 관계를 손상시키고 조종하기 위해 사회적인 집단으로부터 따돌리거나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것,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 등을 말한다[3]. 관계적으로 공격적인 아동들은 높은 수준의 또래 거부, 외로움, 우울, 소외, 친구관계 문제, 외현적 문제 등을 보이며 심한 경우 자살에까지 이를 수 있다[3][4]. 기존 연구는 남학생의 신체적·언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외현적 공격성 연구는 많았지만, 관계 자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적 공격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5].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또래에 대한 의존성과 자기 개방이 증가하기 때문에 분노, 불평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또래 관계 안에서 은밀하게 표출함으로써 관계적 공격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6: 9]. 관계적 공격성 연구는 여학생이 경험하는 공격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정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관계적으로 공격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5]. 관계적 공격성의 성차 비교연구들은 서로 일관되지 않았다. 관계적 공격성은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7-11]와 관계적 공격성은 성차가 있다는 연구[3-5,12-13]로 서로 대립되었다. 이러한 불일치의 원인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남녀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으나, 초등학교 6학년에게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관계적으로 공격적이라는 주장이 있다[6: 17]. 그리고 연령에 따라서 관계적 공격성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연구[14]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 이후 6년 동안 관계적 공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학생에게만 특

정적으로 해당되는 결과였다. 기존 연구의 문제점은 관계적 공격성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았으며[6,14,16-17], 중학생[4,6,10,17-18]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아 관계적 공격성이 과연 여학생의 특정 시기에 발현되는 특성인지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부모의 정서적 학대[12]나 부모 양육태도[17]와 같은 부모로 인한 학대나 양육태도의 원인과도 있고 부모의 심리적 통제[6,10], 친구관계의 질[19,20], 친구관계 문제[12]와 같이 사회적 관계의 형태도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중 대인관계에서 개인의 타인 인식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4], 거부민감성[12,17,19,21]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불안[10,12,15,16], 사회불안 중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10], 사회평가불안[4]이 관계적 공격성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불안(Social Anxiety)은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심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은 과도하게 타인 평가에 집착하고, 타인의 반대와 비판 회피 등을 위해 타인의 약점에 초점화 되고, 직접적인 대면이 최소화되고, 익명성이 극대화되는 관계적 공격을 사용하기도 한다[12]. 사회불안으로 인해 관계적 공격성을 유발할 경우, 또래관계 또는 성인과의 관계를 더욱 부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자신의 미래에도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13]. 또래 괴롭힘 피해학생과 관계적 공격성을 사용하는 가해학생 모두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2]. 이와는 상반되게 11-16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23]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0]에서는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도 나타났지만, 기존 연구들은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4,10-13,15-16,22]가 우세하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에 사회평가불안과 타인의 인정에 대한 과도한 요망이 모두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예상하고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여겨 공격성을 표출한다는 것이다[4].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4]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사회적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은 타인의 평가나 타인의식과 관련된 사회불안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불

안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영향력을 설명하는 제3의 심리적 변인이 있음을 짐작케 해준다. 하지만, 기존 연구의 문제점은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해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관계 공격성에 관한 개념적 패러다임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관계적 공격성을 매개하는 변인으로는 정서조절능력 [13,21],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6,18]이라는 주장이 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관계적 공격성은 정서조절 능력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다[6]. 정서조절은 유쾌한 정서를 최대화하고 불쾌한 정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선택하는 행동, 대처전략, 방어 전략으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절차를 포함한다[25]. 이때 정서조절능력이라 함은 정서를 유발하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 또는 문제 속에서 본인의 정서를 조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다[21]. 또한 아동기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정신적 표상이 가능해지는 시기로 자기 평가 및 성찰이 가능해져서 전반적 인지능력과 정서조절능력이 안정화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정서와 관련된 두뇌 영역은 사춘기 후반까지 성장이 계속 이루어 지므로[26] 학령기의 정서능력은 평생의 정서 성향의 틀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27: 3]. 자신의 정서를 기능적으로 잘 조절하지 못하는 남아는 반응적, 관계적, 주도적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고,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여아는 반응적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28]. 또한 거부에 대한 두려움, 우울, 불안으로 인해 회피하거나 공격적 표현, 감정발산과 같은 부적응적 정서조절을 하며 관계적 공격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거절의 두려움에 대응하고자 함으로 또 다시 거절의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21]. 종합해보면, 정서조절은 자기 파괴적 행동 및 문제행동의 원인이 되며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 간에 매개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남녀 간의 차이가 현격해지고 정서조절능력이 안정화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여학생의 관계 공격성의 양상을 정서조절능력 차원에서 검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불안은 12~13세경에 발병된다는 선행연구[29: 13]를 토대로 사회불안이 시작되는 시기인 아동 후기, 청소년 초기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관계 공격성에 대한 개입 방안으로서 사회불안과 정서조절 전략을 세부적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사회불안과 정서조절능력 및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

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은 매개 역할을 하는가?

연구문제 3.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문제 중심적 대처 지지추구, 감정발산, 공격적 표현, 회피)은 어떠한 매개역할을 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인천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6학년 총 14학급의 여학생들을 편의표집 하여 20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불성실한 응답과 결측치가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총 17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학년별 분포는 4학년은 58명(32.8%), 5학년은 48명(27.1%), 6학년은 71명(40.1%)으로 나타났다.

2.2 연구도구

2.2.1 사회불안 척도

본 연구에서는 La Greca(1998)가 개발한 청소년용 대인불안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 SAS-A)를 변안, 타당화한 청소년용 사회불안척도[30]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8개의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부정적 평가 두려움 8문항, 새로운 상황 회피와 불안 5문항, 일반적 상황 회피와 불안 5문항의 3가지 하위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사회불안 척도의 Cronbach's α 신뢰도는 전체문항 .94였고, 각 하위요인별로는 .92, .86, .82였다.

2.2.2 정서조절능력 척도

본 연구에서는 Eisenberg(1993)가 사용한 13가지 아동 정서조절능력 척도를 바탕으로 개발한 정서조절능력 척도[31]를 사용하였다. 정서조절능력 척도는 총 29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 8문항, 감정 발산 7문항, 공격적 표현 7문항, 회피 7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정서조절능력 척도의 Cronbach's α 신뢰도 전체 .82, 각 하위영역별로는 .80, .86, .86, .67이었다.

2.2.3 관계적 공격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Marsee, Kimmons와 Frick(2004)이 제작한 자기 보고식 또래 갈등 척도(Peer Conflict Scale)를 번역한 척도[13]를 사용하였다. 또래 갈등 척도는 총 40개 문항의 4점 리커트 척도로,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반응적 외현적 공격성,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주도적 외현적 공격성의 4개 영역 중 관계적 공격성을 측정하는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 10문항과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관계적 공격성 척도의 Cronbach's α 신뢰도 전체 .97, 하위영역별로는 .95, .93이었다.

2.3 자료처리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 정서조절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이 매개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제안한 절차[32]에 따라 매개역할을 분석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 효과가 유의미한지 분석하기 위한 Sobel Test의 분석방법은 z-value가 ±1.96보다 크다면 0.05의 유의도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된다.

3. 분석결과

3.1 기술 통계치

연구대상자의 사회적 불안, 정서조절능력, 관계공격성에 관한 기술 통계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Min	Max	M	SD
social anxiety	1.00	4.44	2.30	.80
fear of negative evaluation	1.00	4.75	2.28	.92
social avoidance distress at new circumstance	1.00	5.00	2.60	.99
social avoidance distress at general circumstance	1.00	4.40	2.02	.79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1.52	3.83	3.06	.53
problem-centered copying and support seeking	1.00	3.88	2.48	.66
emotional divergence	1.00	3.43	1.74	.62

aggressive expression	1.00	3.43	1.65	.61
avoidance	1.00	3.71	1.79	.61
relational aggression	1.00	3.55	1.32	.52
reactive relational aggression	1.00	3.30	1.34	.50
proactive relational aggression	1.00	3.90	1.30	.55

3.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사회적 불안, 정서조절능력, 관계공격성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1	1-1	1-2	1-3	2	2-1	2-2	2-3	2-4	3	3-1	3-2
1	-											
1-1	.914 ^{***}	-										
1-2	.875 ^{***}	.654 ^{**}	-									
1-3	.857 ^{***}	.656 ^{**}	.725 ^{**}	-								
2	-.533 ^{***}	-.458 ^{**}	-.420 ^{**}	-.570 ^{***}	-							
2-1	-.280 ^{**}	-.195 [*]	-.245 ^{**}	-.352 ^{**}	.744 ^{***}	-						
2-2	.499 ^{**}	.466 ^{**}	.377 ^{**}	.481 ^{**}	-.872 ^{***}	-.431 ^{**}	-					
2-3	.535 ^{**}	.487 ^{**}	.415 ^{**}	.527 ^{**}	-.916 ^{***}	-.505 ^{**}	.860 ^{**}	-				
2-4	.533 ^{**}	.446 ^{**}	.411 ^{**}	.600 ^{**}	-.880 ^{***}	-.504 ^{**}	.732 ^{**}	.801 ^{**}	-			
3	.417 ^{**}	.350 ^{**}	.339 ^{**}	.447 ^{**}	-.739 ^{***}	-.438 ^{**}	.715 ^{**}	.706 ^{**}	.686 ^{**}	-		
3-1	.410 ^{**}	.349 ^{**}	.338 ^{**}	.426 ^{**}	-.734 ^{***}	-.430 ^{**}	.697 ^{**}	.711 ^{**}	.694 ^{**}	.979 ^{***}	-	
3-2	.409 ^{**}	.339 ^{**}	.328 ^{**}	.450 ^{**}	-.717 ^{***}	-.431 ^{**}	.706 ^{**}	.677 ^{**}	.654 ^{**}	.983 ^{***}	.926 ^{***}	-

1. social anxiety, 1-1. fear of negative evaluation, 1-2. new circumstance avoidance and anxiety, 1-3. general circumstance avoidance and anxiety, 2.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2-1. problem-centered copying and support seeking, 2-2. emotional divergence, 2-3. aggressive expression, 2-4. avoidance, 3. relational aggression, 3-1. reactive relational aggression, 3-2. proactive relational aggression.

*** $p < .001$, ** $p < .01$, * $p < .05$

첫째, 사회불안 전체는 정서조절능력 전체($r = -.533$, $p < .01$)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은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인 문제 중심적 대처 지지추구($r = -.280$, $p < .01$)와 유의한 부적 상관, 감정발산, 공격적 표현, 회피($r = .499 \sim .535$, $p < .01$)와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불안 전체는 관계적 공격성 전체($r = .417$,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불안은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r = .409 \sim .410$, $p < .01$)와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조절능력 전체는 관계적 공격성 전체($r = -.739$, $p < .01$)와 높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능력은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r = -.717 \sim .734$, $p < .001$)과 높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적 공격성은 정서조절

능력의 하위요인인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와는 부적 상관($r = -.438, p < .01$)을 감정발산, 공격적 표현, 회피($r = .686 \sim .715, p < .001$)와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3.3 사회불안, 관계적 공격성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는 아래의 <Table 3>과 같다.

Table 3.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in social anxiety and relational aggression

step	predictor variable (→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1	social anxiety→ emotional regulation	-.804	.096	-.533	-8.337***
		$F = 69.510^{***}$ $R^2 = .284$			
2	social anxiety→ relational aggression	.645	.106	.417	6.070***
		$F = 36.847^{***}$ $R^2 = .174$			
3	social anxiety→ relational aggression	.021	.039	.032	.535
3	emotional regulation→ relational aggression	-.704	.059	-.722	-11.959***
		$F = 104.887^{***}$ $R^2 = .547$			

Sobel test : $Z = 6.855^{***}, ***p < .001, **p < .01, *p < .05$

첫째, 1단계에서 사회불안($B = -.804, t = -8.337$)은 정서조절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전체 설명력은 28.4%이며, 회귀 모형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 = 69.510$). 둘째, 2단계에서 사회불안은 ($B = .645, t = 6.070$)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미하였다. 전체 설명력은 17.4%이며 회귀 모형도 유의미하였다($F = 36.847$). 셋째, 3단계에서 사회불안과 정서조절능력을 독립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값($B = .021$)이 2단계의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값보다 줄어들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정서조절능력은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한 Sobel test 결과, $Z = 6.85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3.4 사회불안, 관계적 공격성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 검증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 지지추구의 매개효과는 아래의 <Table 4>와 같다. 첫째, 1단계에서 사회불안($B = -.340, t = -3.854$)은 문제 중심적 대처 지지추구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전체 설명력은 7.8%이며, 회귀 모형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 = 14.851$). 둘째, 2단계에서 사회불안은 ($B = .645, t = 6.070$)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미하였다. 전체 설명력은 17.4%이며 회귀 모형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 = 36.847$). 셋째, 3단계에서 사회불안과 문제 중심적 대처 지지추구를 독립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값($B = .207$)이 2단계의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값보다 줄어들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문제 중심적 대처 지지추구는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 중심적 대처 지지추구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을 위한 Sobel test 검증 결과, $Z = 3.120$ 으로 유의하였다.

Table 4. mediating effect of problem-centered coping support seeking in social anxiety and relational aggression

step	predictor variable (→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1	social anxiety → problem-centered copying and support seeking	-.340	.088	-.280	-3.854***
		$F = 14.851^{***}$ $R^2 = .078$			
2	social anxiety → relational aggression	.645	.106	.417	6.070***
		$F = 36.847^{***}$ $R^2 = .174$			
3	social anxiety → relational aggression	.207	.043	.319	4.788**
3	problem-centered copying and support seeking → relational aggression	-.275	.052	-.349	-5.233***
		$F = 27.380^{***}$ $R^2 = .286$			

Sobel test: $Z = 3.120^{***}, ***p < .001, **p < .01, *p < .05$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감정발산의 매개효과는 아래의 <Table 5>와 같다.

Table 5. mediating effect of emotion divergence in social anxiety and relational aggression

step	predictor variable (→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1 step	social anxiety→ emotional divergence	.646	.085	.499	7.610***
		F = 57.914*** R ² =.249			
2 step	social anxiety→ relational aggression	.645	.106	.417	6.070***
		F = 36.847*** R ² =.174			
3 step	social anxiety→ relational aggression	.052	.039	.080	1.322
	emotional divergence→ relational aggression	.566	.051	.675	11.100***
		F = 123.218*** R ² =.516			

Sobel test: Z = 6.271***, ***p < .001 **p < .01, *p < .05

첫째, 1단계에서 사회불안(B = .646, t = 7.610)은 감정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전체 설명력은 24.9%이며, 회귀 모형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 = 57.914). 둘째, 2단계에서 사회불안은 (B = .646, t = 6.070)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미하였다. 전체 설명력은 17.4%이며 회귀 모형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 = 36.847). 셋째, 3단계에서 사회불안과 감정발산을 독립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값(B = .052)이 2단계의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값보다 줄어들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감정발산은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정발산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에 Sobel test 검증결과, Z = 6.2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공격적 표현의 매개효과는 아래의 <Table 6>과 같다.

Table 6. mediating effect of aggressive expression in social anxiety and relational aggression

step	predictor variable (→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1 step	social anxiety →aggressive expression	.698	.083	.535	8.370***
		F = 70.062*** R ² =.286			
2 step	social anxiety → relational aggression	.645	.106	.417	6.070***
		F = 36.847*** R ² =.174			

	social anxiety → relational aggression	.036	.041	.055	.871
3 step	aggressive exp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572	.054	.677	10.680***
		F = 114.064*** R ² =.501			

Sobel test: Z = 8.410***, ***p < .001 **p < .01, *p < .05

첫째, 1단계에서 사회불안(B = .698, t = 8.370)은 공격적 표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전체 설명력은 28.6%이며, 회귀 모형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 = 70.062). 둘째, 2단계에서 사회불안은 (B = .646, t = 6.070)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미하였다. 전체 설명력은 17.4%이며 회귀 모형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 = 36.847). 셋째, 3단계에서 사회불안과 공격적 표현을 독립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값(B = .036)이 2단계의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값보다 줄어들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감정발산은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정발산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 검증 결과, Z = 8.41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회피의 매개효과는 아래의 <Table 7>과 같다.

Table 7. mediating effect of avoidance in social anxiety and relational aggression

step	predictor variable (→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1 step	social anxiety → avoidance	.695	.084	.533	8.326***
		F = 69.316*** R ² =.284			
2 step	social anxiety → relational aggression	.645	.106	.417	6.070***
		F = 36.847*** R ² =.174			
3 step	social anxiety→ relational aggression	.047	.042	.072	1.112
	avoidance→ relational aggression	.547	.055	.647	9.967***
		F = 99.343*** R ² =.474			

Sobel test : Z = 6.361***, ***p < .001 **p < .01, *p < .05

첫째, 1단계에서 사회불안(B = .695, t = 8.326)은 회피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전체 설명력은 28.4%이며, 회귀 모형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 = 69.316). 둘째, 2

단계에서 사회불안은 ($B = .645, t = 6.070$) 관계적 공격성에 유의미하였다. 전체 설명력은 17.4%이며 회귀 모형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F = 36.847$). 셋째, 3단계에서 사회불안과 회피 독립변인으로 함께 투입하여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값($B = .047$)이 2단계의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값보다 줄어들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감정발산은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정발산의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obel test 검증 결과, $Z = 6.36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능력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사회불안은 정서조절 능력 전체와 부적 상관을 관계적 공격성과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관계적 공격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정서조절능력은 관계적 공격성과 부적상관이 있었고, 관계적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과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과도 높은 상관이 있었다. 관계적 공격성은 문제 중심적 대처 및 지지추구와는 높은 부적 상관을 감정발산, 공격적 표현, 회피와는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능력이 완전매개 하였다. 이 결과는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사회적 불안은 정서조절을 통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셋째,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문제 중심적 대처 지지추구와 같은 긍정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는 부분 매개 하였으며,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감정발산, 공격적 표현, 회피와 같은 부정적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는 완전매개 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불안이 높은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관계 공격성은 사회불안을 낮추면서 동시에 긍정적 정서조절을 통해 개입해야할 것이

며, 부정적 정서조절을 통해 관계적 공격성을 낮출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5. 논의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사회불안과 정서조절 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정서조절과 사회불안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 [24,29,33-35]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정서조절 양식 중 회피-분산 정서조절 양식을 사용할수록 사회불안을 높게 경험하며, 능동적 정서조절양식과 지지추구 정서조절양식을 사용할수록 사회불안을 낮게 경험한다는 대학생의 사회불안과 정서조절연구[35]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불안이 정서조절 실패와 관련이 있는 변인임을 밝혀주었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에서는 국외의 아동[36], 중학생[10,13], 고등학교 남학생[15], 대학생 [16,12]의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상관이 있었는데, 본 연구결과를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경우에도 사회불안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특히, 사회불안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예상하며 타인의 의도를 적대적으로 여기며 공격성을 표출한다는 견해[4]를 지지해준다. 한편, 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15]에서는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11-16세와 같은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시기를 포괄할 경우의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과 관련이 없었고[23],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6]에서는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과만 상관을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과는 상관이 없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사회불안으로 인한 관계적 공격성은 성별, 발달적 시기별 특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속성임을 밝혀준다.

본 결과는 긍정적 정서조절은 관계적 공격성과 부적 상관, 부정적 정서조절은 관계적 공격성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6,21]를 지지해준다. 관계적 공격성은 적응적인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모든 하위요인에서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18]와도 같은 맥락이며, 정서조절 하위요인인 불안정/부정적정서는 관계적, 외현적 공격성과 정적상관을 보였다는 연구[37]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를 통해 정서조절능력과 관계적 공격성은 아동 [20], 초등학교 고학년 [21], 중학생[6]으로 대상을 달리하더라도 관련 변수임을 밝혔다. 초등학생에 관계공격성에

관한 이론적 함의는 정서조절 문제에서 오는 관계공격성은 발달적 특성이 아니라 성격적 기질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사회불안이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사회불안이 높은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 간에 관계에서 정서조절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정서조절이 관계적 공격성 개입의 구체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감정조절은 정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자기와 주요 타자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나 감정을 유발하는 외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25]의 정서조절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지지해준다. 본 결과는 경상지역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9]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인지적 정서조절을 잘 하지 못하면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완화 시키지 못하여 사회적 관계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견해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불안과 사회적 관계 문제에서 정서조절이 매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그의 연구에서는 인지적 정서조절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체형적 정서조절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제 중심 대처 및 지지추구와 같은 행동적 정서조절 전략과 감정발산, 공격적 표현, 회피와 같은 부적응적인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기능이 강조되었다. 또한 본 결과는 중학생의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10]와 일치하고, 대학생의 사회불안과 관계적 공격성의 경로가 유의미 하지 않아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연구[16]와는 대조적이다. 기존 선행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초등학교의 관계공격성에 관한 이론적 함의는 불안 정서를 유발하는 사회적 장면에서 나타나는 관계적 공격성의 특성은 성별, 정서 발달적 단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시기까지의 사회불안이라는 부정정서는 관계적 공격성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대학생 시기가 되면 사회적 상황에 따라 관계적 공격성 스타일이 분화된다는 점이다. 즉, 주도적 관계적 공격성은 정서조망과 수용 및 적절한 정서표현이 발달됨으로써 적응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자제력이 발달될 수 있지만 도발, 좌절된 기대, 위협에 대한 분노로 관계적 공격성을 사용하는 반응적 관계적 공격성은 그렇지 않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본 결과는 정서조절능력이 기분장애와 불안장애 환자[38]뿐 아니라 일반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관계공격성 감소

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밝혔다.

셋째, 정서조절능력의 하위요인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해볼 때,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아지지만 긍정적 정서조절이 관계적 공격성을 감소시키고 부정적 정서조절능력이 높아지지만 관계적 공격성이 높아진다는 연구[21]와 유사하다. 또한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34]에서 사회불안의 감소는 곧 공격성의 감소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본 결과의 이론적 함의는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이 경험하는 사회불안이 관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행동적 감정조절뿐 아니라 부정적 정서조망과 수용 및 적응적 감정표현을 통한 정서적 감정조절의 중요성 부각이다. 기존 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은 사회불안이 높은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서조절 개입전략이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나 상황회피와 불안과 관련된 사회불안이 높은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관계 공격성 감소를 위해서는 사회불안도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문제 중심적 대처와 지지추구와 같은 행동적 정서조절능력을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불안을 경험하더라도 감정발산이나, 공격적 표현, 회피와 같은 부적응적인 정서조절만으로도 친구들을 헐뜯하고 따돌림 하는 것과 관련된 관계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사회불안이 높은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을 매개하는 제3의 요인인 정서조절능력이라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본 결과를 통한 초등 상담의 함의는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의 관계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행동적 정서조절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사회불안 감소를 위한 개입을 병행해야한다는 점이다. 또한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들이 경험하는 사회불안과 같은 불쾌한 정서를 회피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감정접촉을 시도하는 계수탈트 접근,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고 자신의 가치에 발견하고 결단을 내리도록 개입하는 ACT(수용전념 행동치료), 압도된 감정 조절, 고통 감내력 기술, 알아차림 명상과 대인관계 기술이 혼합된 DBT(변증법적 행동치료), 자신의 감정을 비공격적으로 표현하는 자기주장 훈련이 효과적일 것이다. 반면,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인천 일부 지역의 초등학교 고학생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전국의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확장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의 유무나 임상집단과 비 임상집단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따돌림의 형태나 임상집단과의 비교연구도 필요하겠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 2017.
- [2] H. J. Chung, K. S. Kim, "The Influences of School related Psychological Factors on Children's Aggression",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22, No. 4, pp. 351-378, 2009.
- [3] N. R. Crick, J. K. Grotpeter,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Vol. 66, No. 3, pp. 710-722. 1995.
DOI: <https://doi.org/10.2307/1131945>.
- [4] Y. K. Han, E. J. Kim, "Relationships among Social Evaluative Anxiety, Excessive Demand for Others' Approval, and The Subtypes of Relational Aggression in Early Adolescence", *Korea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30, No. 4, pp. 985-1002, 2011.
- [5] Y. R. Kim. The Mediating Role of Unmitigated Commun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Rejective Parenting and Girls' Victimization of relational Aggres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17.
- [6] H. Y. Lee, The Effects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on Relational Aggres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Yon Sei University. 2014.
- [7] J. H. Kim, J. N. Chung, Y. H. Kwon, S. H. Min. "Relations between Mothers' Responses about Their Preschoolers'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on by Preschoolers' Aggressive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0, No. 2, pp. 95-104, 2009.
- [8] M. J. Park, B. G. Choi. "The Ecological Variables on Adolescent Relational Aggression",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2, No. 4, pp. 95-104, 2004.
- [9] C. A. Lee, Peer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1.
- [10] J. E. Hyun,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Social Anxiety and Relational Aggres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10.
- [11] A. Loukas, S. K. Paulos, S. Robinson, "Early Adolescent Social and Overt Aggression: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34, No. 4, pp. 335-345. 2005.
DOI: <https://doi.org/10.1007/s10964-005-5757-2>
- [12] R. Ba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Abuse, Friendship Problems, and Relational Aggression: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Social Anxiety, and Anger Rumin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 nam University. 2017.
- [13] Y. K. Han, (The) Relation of Psychological Variables to Relational Aggression in Early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Ajou University. 2008.
- [14] D. Murray-Close, J. M. Ostrov, N. R. Crick,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f Growth of Relational Aggression during Middle childhood: Associations with Gender, Friendship Intimacy, and Internalizing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19, pp. 187-203. 2007.
DOI: <https://doi.org/10.1017/S0954579407070101>
- [15] K. S.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Illu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Relational Aggression of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Sangji University. 2014.
- [16] W. B. Noh. The Influence of Covert Narcissism on Relational Aggression of College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 Analysis of Self-Esteem and Social Anxiety.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Myongji University. 2015.
- [17] Y. J. Jeon, The Influence of Perceived Parenting Attitudes on Relational Agg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17.
- [18] E. H. Song, Th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Relational Aggress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2017.
- [19] W. R. Park, S. H. Hong. "The Relationships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of Children and Quality of Friendship : The Mediating Effects of Hostility and Relational Aggression",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Vol. 26, No. 2, pp. 285-302, 2015.
- [20] Y. G. Han, "Emotion Regulation as a Predictor of Aggression and Peer Relationships in School-Age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26, No. 4, pp. 85-100, 2005.
- [21] Y. M. Kim. The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on Relational Aggression : The Mediation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Ability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Yon Sei University. 2016.
- [22] Y. J. Ji, A Study on the Mediation Effects Related to the Peer Victimization and Interpersonal Anxiety in the Relation between Shyness and Aggression.

-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13.
- [23] C. M. Culotta, S. E. Goldstein, "Adolescents' Aggressive and Prosocial Behavior: Associations with Jealousy and Social Anxiety",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Vol. 169, No. 1, pp. 21-33. 2008.
DOI: <https://doi.org/10.3200/GNT>.
- [24] M. Y. Bae, Multiple Mediator Effects of Social Skills, Self-disclosure, and Friendship Quality in the Relations between Social Anxiety and Subjective Well-be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4.
- [25] D. Western, "Toward an Integration Model of affect Regulation: Application to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Vol. 62, pp. 641-667. 1994.
DOI: <https://doi.org/10.1111/j.1467-6494.1994.tb00312.x>
- [26] D. Goleman,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NY, England: Bantam Books, Inc. 1995.
- [27] E. S. Choi, (The) Emotional Identification and Expression Abilities Improvement Progra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10.
- [28] S. Y. Park, J. H. Kang,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26, No. 1, pp. 1-14, 2005.
- [29] Y. S. Choi, The Mediating Effects of Cognitive Emotional Regul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Social Anxiety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Ch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3.
- [30] J. Y. Yang, Y. R. Yang, K. J. Oh, "The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Symptoms of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7, No. 1, pp. 35-50, 2008.
- [31] H. S. Lim, Child's Sex, Temperament, Mother's Emotion Regulation, and Parenting as Related to Child's Emotion Regul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2009.
- [32] R. M. Baron, D. A. Kenny,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pp. 1173-1182. 1986.
DOI: <https://doi.org/0022-3514/86>.
- [33] S. K. Kim.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Dysregulation between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Social Anxiety.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3.
- [34] G. Y. Byeon,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Social Anxiety and Aggress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Self- Acceptance.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Konyang University. 2016.
- [35] J. H. Jeong, The Effects of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on Social Anxiety of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2016.
- [36] M. A. Marsee, C. F. Weems, L. K. Taylor, "Exploring the Association between Aggression and Anxiety in Youth: A look at Aggressive Subtypes, Gender, and Social Cogni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 17, issue. 1, pp. 154-168, 2008.
DOI: <https://doi.org/10.1007/s10826-007-9154-1>
- [37] J. H. Lee, The Influence of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on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2009.
- [38] A. Y. Shin, J. H. Cha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Patients with Depressive and Anxiety Disorders.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Vol. 11, No. 1, pp. 41-52, 2011.

이 화 목(Hwa-Mok Lee)

[준(학생)회원]



- 2018년 2월 :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상담심리학석사)

<관심분야>

초등상담, 관계적 공격성, 사회불안, 정서조절

김 현 아(Hyun-Ah Kim)

[정회원]



- 2006년 8월 : 경북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교육학박사)
- 2003년 1월 ~ 2007년 12월 : 통
일부 하나원 심리상담사
- 2008년 3월 ~ 2010년 6월 :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 2010년 6월 ~ 현재 :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관심분야>

트라우마 회복력, 삶의 질, 정서조절